

第144回國會 國會本會議會議錄 開會式

大韓民國國會事務處

1988年9月10日(土) 午前10時 開式

第144回國會(定期會)開會式順

- 1. 開 式
- 1. 國旗에 대한敬禮
- 1. 愛國歌齊唱
- 1.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를 위한默念
- 1. 開 會 辭
- 1. 閉 式

(司會: 涉外局長 李在都)

(10時10分 開式)

○涉外局長 李在都 지금으로부터 第144回 國會 定期會 開會式을 舉行하겠습니다.

먼저 國旗에 대한敬禮가 있겠습니다. 壇上에 있는 國旗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대한敬禮)

다음은 愛國歌를 齊唱하겠습니다.

前奏曲에 따라 1節만 齊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를 위한默念이 있겠습니다.

默念은 默念曲에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默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在淳 尊敬하는 李一珪 大法院長 李賢宰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과 來賓 여러분! 그리고 敬愛하는 國會議員 여러분!

우리는 오늘 第13代國會의 첫 定期國會를 開會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43回 臨時國會에 이어 한달 반만에 議員 여러분의 健康하고 活氣에 찬 모습을 다시 대하게 되니 반갑고 기쁜 마음 그지 없습니다.

금년 農事는 水災 등 災害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全國적으로 豐作이 豫想된다고 합니다. 역시 기쁜 消息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國民의 땀흘린 勞苦에 깊이 感謝드립니다.

이번 144回 定期國會는 主權이 國民에게 있음을 분명히 確認하고자 하는 우리 國民의 크나큰 期待를 받으며 誕生한 13代國會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定期國會입니다.

가슴벅찬 自負心과 함께 막중한 責任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月30日 開院以後 두 차례의 臨時國會와 休會期間을 합쳐 불과 3個月 남짓 짧은 時日이었음에도 우리는 國民의 期待에 副應하는 몇 가지 議政慣行을 創出해 냈습니다.

그 하나는 「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法律案」과 「國會에서의 證言·鑑定 등에 관한法律改正法律案」의 再議要求가 政府로부터 왔을 때 후시 빚어 질 수도 있었던 政局梗塞의 狀況에서 與野가 지난날의 獨善과 我執을 버리고 問題를 問題自體에 局限시켜서 誠實하게 對應하는 科學的인 우리 國會의 水準을 確認시켜 준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大法院長 任命同意 過程에서 確認된 國會와 政府의 遵法精神입니다.

國會의 拒否決議를 수용하여 迅速하게 對應한 政府의 遵法精神은 過去 舊體制 속에서

政府의 非妥協的 獨走만을 보아왔던 우리 국민에게는 3權分立의 民主制度를 實感하고 確認할 수 있었던 歷史的 經驗이었습니다.

그 過程에서 與黨이 堪耐해야 했던 적지 않은 當惑感은 우리 國民의 民主主義에 대한 自信感의 提高로 相殺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大統領의 7月7日 特別宣言의 發表 過程에서 政府가 事前에 4黨 代表와 協議를 갖고 國會議長團에도 事前 說明을 하는 등 統一 外交政策에 關하여 舉國的 合意를 導出한 事例과 우리 國會가 「올림픽의 平和를 지키기 위한 法律案」을 與野 滿場一致로 通過시켜 서울「올림픽」의 成功的 開催를 위한 法的 制度의 뒷받침을 마련한 事例은 진정한 國利民福을 위하여 黨利黨略을 超越할 수 있는 13代國會와 政府의 力量을 確認할 수 있었던 貴重한 經驗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특히 自負하고 싶고 以後에도 대단히 重要하게 機能하게 될 慣行은 南北國會會談에 臨하여 4黨의 充分한 協議를 거쳐 院議를 決定하고 한 목소리로서 會談에 臨할 수 있었다는 經驗입니다.

南北國會會談은 그 會談形式과 議題에 關한 南北間의 異見때문에 空轉하고 있습니다만 南北會談의 한 窓口를 열었다는 값진 成果를 얻었습니다. 이 窓口를 더욱 넓히고 實效性 있는 南北對話의 길이 되도록 다듬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4黨이 院議合意에 도달한 그 慣行을 계속 살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休會期間동안 行해진 多邊的 議員外交活動 또한 結果的으로 國家利益에 寄與하게 될 것을 確信합니다.

政府가 할 수 없는 範疇의 議員外交活動은 國威를 宣揚하고 世界平和에 寄與하여 國民의 多樣한 要求에 副應할 수 있는 重要한 議員活動의 하나로서 앞으로 더욱 專門化하고 體系化하여 國力伸張에 貢獻할 수 있게 되기를 期待합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創出한 慣行은 國民에게는 勿論이요 우리 自身에게도 希望과 勇氣를 주었습니다.

우리 13代國會가 出帆할 때 4黨竝立으로 인한 政局混亂을 豫想하며 걱정하는 國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執權與黨이 多數議席을 차지하지 못한 우리 憲政史에서 일찌기 經驗해 보지 못한 議席分布로 인한 政府의 非能率 내지 無力化를 憂慮하는 輿論도 없지 않았었습니다.

事實 그러한 否定的인 要因은 13代國會의 任期동안 常存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否定的 要因을 우리 모두가 直視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오직 眞正한 民主主義만을 憧憬하며 歷史의 暴風雨 속을 달려온 經綸 높은 與野 指導者들의 同質性과 自重自愛하는 姿勢 덕택에 우리는 對話와 妥協이라는 門을 通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民主和合의 體質과 風土를 鍊磨하고 創造함으로써 民主化에 대한 國民의 熱望을 充足시키고 나아가서 眞理의 政治文化를 後世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神聖한 歷史的 使命을 賦與받고 있는 우리 13代國會에서 與黨은 禁斷의 苦痛을 忍耐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고 野黨은 批判的 局外者가 아니라 國政의 同伴者로서 國民 앞에 지고 있는 共同責任을 잠시도 忘却해서는 안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國民들이 念慮하던 바를 버리고 우리 國會를 信望하고 있다는 것은 分明합니다.

一部 大學生들이 南北學生會談을 強行하려고 했던 6·10 및 8·15事態때 國民의 代議機構인 國會와 國政의 執行機構인 政府를 通하지 않는 革命的 政治活動에 대해서는 斷乎하게 外面한다는 確證을 우리 國民은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國民은 自身의 손으로 投票하여 세운 國會와 政府라는 事實을 결코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種類의 革命的 威脅에서도 우리 國會와 政府를 지켜줄 것은 바로 우리 國民이라는 것을 우리는 確信했습니다.

國會와 政府 그리고 司法府를 지키는 것은 바로 國民自身의 權利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敬愛하는 議員 여러분!

앞에서 例示한 바 우리가 이룬 創造的인 議政慣行을 가지고 懸案問題에 接近한다면 우리가 解決할 수 없는 問題란 없다고 봅니다.

이번 定期國會에는 크게 보아 두가지 主要 任務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서울「올림픽」大會를 成功的으로 開催해야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1989年度 國家豫算을 審議·確定하는 일입니다.

서울「올림픽」大會는 우리 國民은 勿論 온 世界人類가 그 成功을 바라고 있는 榮譽로운 行事입니다.

日本을 除外한 「아시아」 大陸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世界「올림픽」大會요 歷代 「올림픽」大會중에서 161個國이라는 가장 多數의 國家가 參與하는 人類和合의 大祭典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다시 「올림픽」大會가 열리려면 尙早라도 100年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貴한 行事입니다.

서울「올림픽」大會의 成功的인 開催는 全世界의 우리 國力에 대한 評價와 信任度를 劃期的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이 大會의 成功을 契機로 冷戰體制의 壁은 무너지고 우리가 交流할 수 없는 國家란 더 이상 存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蘇聯의 「모스크바 불쇼이」舞踊團과 合唱團이 서울에 와서 公演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올림픽」大會의 成功的인 開催는 무엇보다도 우리 國民의 自尊과 矜持를 飛躍적으로 높여줄 것이며 이 精神的인 所得은 놀랄만한 活力素가 되어 臨迫해 있는 「아시아」 太平洋時代의 主役國民으로서 그 能力을 培養하는데 크게 寄與할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肯定的인 價値를 지니고 있는 서울「올림픽」大會의 成功的인 開催를 위하여 우리 國會는 與野의 完全한 合意로 「올림픽」特別委員會를 構成하였고 「올림픽의 平和를 지키기 위한 法律」을 制定하였으며 大會期間이 包含되는 9月16일부터 10月3일까지 定期國會를 休會하여 「올림픽」行事를 超黨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北韓의 우리 同胞들이 서울에 와서 함께 이 榮光스러운 民族의 祭典에 參加하기를 바랐던 우리의 懇切한 所望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月9日 本會議에서 與野 滿場一致로 「北韓選手團의 서울올림픽大會에의 參加 促求決議文」을 採擇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南北國會會談을 通하여 北韓選手들의 서울「올림픽」 參加를 誠心誠意껏 促求했습니다만 北韓側은 「올림픽」規約에도 없는 共同開催 方案만을 固執하며 서울「올림픽」 參加를 拒否했습니다.

北韓의 서울「올림픽」大會 參加를 契機로 南北間의 和解와 協力の 時代가 歷史적으로 開幕되기를 期待했던 우리의 所望은 오히려 南北間의 무시할 수 없는 異質性과 깊은 間격을 다시 한번 確認한 成果 아닌 成果만을 얻었습니다.

南北韓의 平和定着과 全面的인 交流를 熱望하는 우리로서는 보다 科學的인 檢討와 綜合的인 對策과 보다 能動的이고 組織的인 行動으로 우리의 理想을 實現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서울「올림픽」大會는 우리 祖國과 國民으로서는 며칠동안의 體育行事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行事가 끝난 以後부터 우리의 진정한 「올림픽」은 始作될 것입니다.

서울「올림픽」大會를 通하여 우리 國民이 얻을 수 있는 모든 精神的인 物質的인 利益을 看過하거나 流失하지 말고 收穫하여 子孫萬代의 繁榮을 위한 跳躍臺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緻密한 注意力과 果敢한 決斷力이 要求되는 그 秋收作業을 할 사람은 이 자리에 모인 바로 우리들이라는 事實을 銘心하셔야 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이번 定期國會의 다른 이름은 豫算國會라고 할 수 있습니다.

豫算은 國民의 살림살이가 그 質과 量이 數字로 表現된 것입니다. 우리 國會와 政府의 政治的인 理想을 數字로 形象化한 것이 바로 豫算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新年度 豫算 審議·確定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任期동안 國家豫算 審議·確定을 통하여 民主主義가 定着된 國家는 그 經濟發展도 獨裁國家보다 훨씬 效率的이라는 것을 證明해야 하겠습니다.

民主化라고 하면 곧바로 政治的인 混亂과 無秩序 經濟的인 浪費와 紛爭을 聯想하며 效率을 내세우는 獨裁體制의 名分이야말로 虛構인 것을 證明해야 하겠습니다.

면밀한 討議와 誤謬없는 合意가 可能的인 民

主義야말로 眞正 富強한 國民經濟를 이룰 수 있다는 事實을 證明해야 하는 使命을 우리 13代國會는 지니고 있습니다.

政府가 提出한 來年度 豫算案과 諸般 法律案을 審議하는데 있어서 議員 여러분께서는 무엇보다도 國民生活 安定과 民主化 改革이라는 指標를 가지고 平素 蓄積하신 經綸과 專門知識과 叡智를 다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浪費없고 效率을 極大化할 수 있는 豫算이 確定되기를 다시 한번 期待합니다.

아울러 國務委員 여러분께서는 豫算案과 諸般 法律案의 審議過程을 通해서 政府의 施策 方向을 우리 國民이 잘 알 수 있도록 昭詳하게 說明해 주시고 國會議員들이 代辯하는 國民의 眞正한 期待가 收斂될 수 있도록 誠意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豫算案 內容중에 行政當局으로서 苦衷이나 隘路事項이 있다면 이를 솔직히 밝히고 國會의 協調를 求함으로써 國民과 議會 그리고 政府가 渾然一體가 되어 歷史만을 進一步 시키는 새해를 만들어 나가십시다.

특히 民主化의 過渡期인 이 時點의 豫算案 審議過程에서 혹시 政府의 因習의인 豫算編成과 民主國會의 改革의인 指標가 相衡할 수 있다고 豫想됩니다.

歷史의 分水嶺을 함께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共通된 認識으로 國會와 政府는 忍耐에 忍耐를 거듭하고 熟考에 熟考를 거듭하여 豫算案 審議過程에서도 民主和合의 빛나는 慣行을 創造할 수 있도록 精誠을 다 하십시다.

또한 16年만에 復活한 國政監査權을 使用함에서도 마치 사람을 죽이는 殺人劔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活人劔이 되도록 칼을 使用하듯이 議員 여러분께서는 극도로 纖細한 注意力을 堅持하여 國民의 尊敬을 維持하고 後世의 模範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敬愛하는 議員 여러분! 우리 13代國會는 前例에 따르거나 經驗에만 依存해서는 對應할 수 없는 全然 새로운 挑戰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波濤처럼 連續的으로 다가오는 이 새로운 挑戰들을 우리는 些少한 過誤도 없이 處理해 나가야 하는 運命을 지니고 있습니다.

國內에서는 政治·經濟·社會·文化 모든 分野에서 舊秩序를 清算하고 眞正한 民主化를 啓導·定着시키며 安定속의 改革이라는 第6共和國의 目標를 遂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各 各 自身の 位置에서 創造의인 陣痛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妥協이 있는 곳에는 葛藤이 없고 改革이 있는 곳에는 革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民主化의 實體는 對話와 妥協을 通해 꾸준히 改革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強調하는 바입니다.

특히 國民의 關心이 集中되어 있는 特別委員會의 活動은 國家의 道德性을 確保하기 위한 歷史的 召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國家의 神聖한 道德性 回復이라는 本來의 目標와 次元을 벗어난다면 우리 역시 이른바 政治라는 이름으로 道德性을 喪失하는 矛盾에 빠지기 쉬운 陷穽이 있다는 事實을 우리는 잠시도 忘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하나 보다 어렵고 새로운 挑戰은 國外에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大會 以後 展開될 開放의인 國際情勢 속에서 期待되는 蘇聯·中共을 비롯한 共產國家들과의 활발한 交流는 우리에게는 未知의 冒險인 것입니다.

共產圈이라는 이 낯설은 天地에서 닥쳐온갖 새로운 挑戰을 우리 國會는 能動的이고 未來指向的으로 對處하며 後世를 위한 肯定的 先例를 착실하게 確立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議員同志 여러분! 議員外交活動中에 우리는 世界에 나아가서 重要한 두가지 現實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하나는 온 世界가 우리의 民主化를 기뻐하며 祝福해 주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民主化를 이룩한 우리 國民을 全世界가 尊敬하고 있습니다.

獨裁國家에 比해서 民主國家는 친구가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바로 우리 國力の 強力한 한 部分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現實은 全世界가 21世紀를 맞이할 準備를 하며 숨가쁘게 前進하고 있다는 事實입니다.

보다 開明되고 보다 豐饒한 未來를 향해서

그들의 눈은 앞을 凝視하고 있습니다.

21世紀는 불과 12年 앞으로 우리에게도 닥쳐와 있습니다.

過去만 돌아보고 있기에는 우리의 未來를 위한 時間은 너무 적고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前向的인 決斷이야말로 바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智慧일 것입니다.

우리는 未知의 大陸을 向해서 험한 大洋을 航海中인 探險船에 함께 타고 있는 船員들입니다.

보배로운 大陸에 다다르면 그 기쁨과 보람과 收穫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道德的으로 正義로운 國民들이 太平聖代를 노래하는 福祉國家가 이룩된다면 그 기쁨 그 보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꿈을 잠시라도 拋棄하지 맙시다.

國家利益과 國民의 福祉向上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議事堂안에 모여있는 것이라는 우리의 存在理由를 잠시도 잊지 맙시다.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의 遺憾없는 健闘를 祈願하며 삼가 許諾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 勝利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祈禱하며 開會辭를 맺습니다.

感謝합니다.

1988年 9月 10日

國會議長 金在淳

○涉外局長 李在都 이상으로 第144回 國會定期會 開會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時33分 閉式)